

부정선거 가능성 1%도 없어야

사전투표 폐지·수개표 전환해야…선거제도개혁 주권 회복 절실

(사)한국기독교교보수교단총연합회와 전국 기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22일(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전환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이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기”라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주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 주권 싸움의 본질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간섭과 이에 편승해 권력을 유지해온 친중 정치세력의 문제이며, 이들은 중국의 체제 붕괴와 조짐과 이에 연계된 국내 세력의 쇠퇴로 인해 지금이야말로 선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투표 조작, 전자개표기 왜곡, 외국인 투표 참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의 의혹 제기는 묵살되고, ‘부정선거’라는 표현조차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 조기대선을 강행할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의 주권 아래 놓인 행정기구임을 명심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운영 방식은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고 이에 따라서 선관위 개혁도 핵심적인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참여 단체들은 “이번 조기대선은 단지 정권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주



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와 총궐기를 통해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 명령을 선언했다.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며, 전자개표기를 금지하고 모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며, 대선 후보들은 이 개혁에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거부한 자로 간주하며, 국민은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 도입이 확정되기 전까지 선거 불참과 시민불복종 운동을 통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국제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기후재난과 경제 위기, 군부 분열 등으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단절에 나서고 있다”며 “이제는 친중 정치세력과 관련된 모든 인물, 자금, 홍보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반역 혐의로 법적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민의 위임을 기억하고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정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은 단결해 저항할 것이며,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사)한국기독교교보수교단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교계 단체는 물론, 전국불교예배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교로세우기연대, 한미동맹강화재단, 대한민국자유대연합 등 약 2,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공정선거 촉구 국민성명서] 전문 5면에 게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3차 모임 갖고 신임원진 공포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4월 17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74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선관위 서기 조길수 목사의 기도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행 15: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세워

지는 총회장을 비롯 임원진에 마음을 합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조길수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3월 31일까지 임원 입후보자가 없음으로 헌법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신임원진이 천거되어 관련서류를 정리 자격심사를 거쳐 임원진을 공포하기로 했다.



‘은혜와 사랑, 경외와 공정’



조용목 목사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엢 6:1~3)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보배로운 말은 은혜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다음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성스러운 의무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잠 1:7, 9:10)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워함이라 하였느니라.”(마 13:14,15)

복음을 들음으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고 죽으면 지옥형벌에 처하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이며 계명입니다.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그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공경에는 어떤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닦고 싶게 하였느니라”(엢 6:2,3) 하였 습니다.

부모 공경은 결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에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 다. 부모가 요구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 습니다. 공경은 공손히 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양육한 일만으로도 존경받기에 마땅합니다. 낳아주시는 부모뿐 아니라 길러주시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 역시 놀랍고 위대합니다.

희생 없는 공경은 참된 공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 다.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거리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식이 직장과 교회에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과 자랑거리가 됩니다.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면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람을 느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 전심전력으로 전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과 봉사 활동과 주님께 드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힘써 도와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을 받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는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며 좋은 사회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제74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총회장 후보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부총회장 후보



이인호 목사(유임)
홍제은혜교회

총무 후보



오세준 목사(유임)
순복음침중은교회

서기 후보



문찬우 목사
온선교회

재무 후보



최정식 목사(유임)
순복음복된교회

회계 후보



백영자 목사(유임)
녹동순복음교회

2025년 4월 17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신재영
서기 목사 조길수

한기총, 경북 산불피해 지역 위로

의성, 청송, 영덕, 안동 등지의 교회, 연합회 6곳 상황 살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지난 4월 17일,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 교회와 지역 연합회를 직접 찾아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와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 비서 실장 이희현 목사 등은 이날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안동 등지의 교회와 연합회 6곳을 돌아 보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의 상황을 살폈다.

한기총 방문단을 만난 청송군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상준 목사는 “이 시골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저희 마을에는 24가구가 전소되고 1명이 사망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 지금은 저 아래 창고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방문단은 영덕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충연 목사(류전교회)의 인도로 교회 건물과 모든 집기가 잿더미로 변한 축산면 새별엘교회(담임 신성희 목사)를 방문했다. 신 목사의 아내 이드보라 목사는 같은 곳에서 마

하나임기도원을 운영 중이었고, 2년 전 사택을 리모델링했지만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탔다.

이충연 목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지역 교회가 총 12곳이라고 설명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교회는 경정·매정·오전·충성·화전·빛과소금·석동 등 7곳이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교회는 노물반석·신양·낙평·오보·구세군신안 등 5곳이다.

교인들 피해도 전해지고 있다. 총 34곳의 교회에서 177명의 성도들이 피해를 호소했으며, 피해 사례 중 주택 전소가 103가정으로 가장 많았다. 영덕군 전체로는 주택 1,561세대와 점포 218개소, 차량 46대, 농기계 1,188대, 어선 28척, 농작물 109ha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의성군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규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5곳 교회가 결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성도들의 주택은 26채나 전소됐다”며 “특히 120년된

하화교회가 전소되는 너무도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 1904년 설립된 하화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역사를 간직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교회인데, 참으로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 발화지이자 가장 피해가 컸던 의성 지역 목회자들은 방문단을 단초면 하화교회로 안내했다. ‘120년 역사 교회’로 이번 산불 관련 보도에 자주 등장했던 바로 그곳이다. 1904년 설립돼 일제 박해도 견뎌냈던 하화교회는 사전에서 본 대로 벽돌 빼대만 겨우 남아 있었다.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타 사라졌고, 바로 오른쪽에 있던 사택도 전소됐으며 지난 2007년 세운 ‘창립 100주년 기념비’만 덩그러니 남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방문단은 마지막으로 안동 남문교회를 찾아, 안동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임정순 목사에게 현황을 청취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임정순 목사는 “주신 성금을 피해 입은 교회들에게 잘 나누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독교원로목사회 부활절 감사예배 드려

“본질을 찾고 회복할 때 생명을 얻게 될 것”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김성만 목사|이하 한기원)는 지난 4월 17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창희 목사(한기원 서기)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창제 목사(한기원 공동회장)의 대표기도, 조은순 전도사(누가신학대학원 원우)의 성경봉독, 한기원 찬양단(지휘자 김현실 목사)의 ‘살아계신 주’ 찬양, 고성주 목사(강서대학교 이사장)의 행 6:1~4, 요 11:25~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주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기독교의 본질과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 발전과 부흥에 치중하기에 병들고 부작용이 많다. 본질을 찾고 회복할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특별기도는 탁명진 목사가 ‘한국교회연합과 회복을 위하여’, 김홍식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김홍대 목사가

‘한기원 부흥발전을 위하여’, 손영철 목사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정준기 목사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 ‘기독교인 만세’, ‘한기원 만세’ 만세삼창을 한 뒤 배승익 목사(한기원 고문)가 축도했다.

여름철 연탄 지원 프로젝트 ‘하(夏)탄연탄’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봄·여름철 연탄 사용 가정지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이 계절의 틈에서 여전히 연탄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철 연탄 지원 프로젝트 ‘하(夏)탄연탄’을 진행했다고 4월23일 밝혔다.

‘하탄연탄’은 겨울에 집중되는 연탄 기부의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봄·여름철 연탄 사용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이다. 연탄은 점차 사라져가는 에너지원이지만, 현재도 전국 7만여 가구가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저소득 고령층 가구는 난방뿐 아니라 취사까지 연탄에 의존하고 있어, 기온이 오를 계절에도 여전히 필수

적인 생존 수단으로 남아 있다.

지난 4월19일, 연탄 지원이 진행된 과천 ‘꿀벌마을’은 도시 외곽 개발 지대와 철거 예정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닐하우스 밀집 거주지역이다.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며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외풍에 취약하고, 꽃샘추위나 장마철에도 생활환경이 크게 위협받는다.

하지만 연탄에 대한 수요는 계절을 가리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가구는 ‘겨울에만’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이었던 삼천리 연탄공장마저 지난해 철거에 들어가면서 연탄 가격은 장당 1000원을 넘겼다.



중국 성경배포금지 등 기독교박해 더 심해져

내몽골자치구 기독교인 9명 성경배포 혐의 투옥

중국 북부에 위치한 내몽골자치구에서 기독교인 9명이 성경을 배포한 혐의로 투옥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 “중국의 기독교인 9명이 가정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출판된 성경을 재판매한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며 “비터윈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투옥된 기독교인은 왕홍란, 지해잉, 장왕, 왕지애, 류민나, 리차오, 양지핀, 지귀룽, 류웨이, 반안홍 씨 등으로 각각 1~4년형을 선고받았다.

후허하오터 후이민 지방법원은 특히 왕홍

란 씨에게 불법 영업 혐의로 4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00만 엔(약 1억 9,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홍란은 과거에도 5년간의 징역과 1년간의 노동수용소 수감 등 박해받은 전력이 있다.

해당 판결은 이번 달 초 진척과 교우들에게 처음 알려졌다. 실제 판결일은 2024년 11월 20일이었다. 지해잉, 지귀룽, 장왕, 류웨이, 리차오 등 5명은 선고일까지 이미 재판 전 구금을 통해 형기를 마쳤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경을 판매한 이유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전히 복음 전파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을 정가 대비 25% 할인된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었다.

공선연, 사전선거 지정예약제 도입 촉구

전한길 대표 “개선 요구 받아들이지 않을 시 불복 운동 펼칠 것”

6/3 대선을 겨냥해 보수권이 중심이 된 공명선거전국연합(이하 공선연)이 공식 출범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사전선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그 어느때보다 공정한 대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소리인데, 국가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선연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공명선거전국연합 출범식을 갖고, 부정선거 완전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선연의 ‘공명선거 운동’의 핵심은 사전투표의 개선이다. 공선연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선연은 “당일투표는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일련번지로 따로 보관 등의 실물 증거자료를 보관하지만, 사전투표는 실물 증거가 오직 복



제 가능한 투표용지 밖에 없다”며 “이는 누구나 프린트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들 투표용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선연은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할 것 △사전투표 지정예약제 도입 △전류 과세형 봉인 지 사용 및 개표소에서만 봉인 해제할 것 △투표함에 대한 CCTV 설치 및 상시공개 등을 요구했다.

개교 39주년 기념 Midwest 가족의 밤

Midwest univ 학문적 우수성과 공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Midwest University(설립자 및 총장 Dr. James Song)가 개교 39주년을 맞아 4월 2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Midwest 가족의 밤’(총동문회장 박동호 박사)을 개최하여, 동문과 교수진, 재학생,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기념하고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Dr. James Song 총장과 미

주리 주 하원의원이자 Midwest University 재단 이사인 Rep. Richard W. West가 직접 내한해 동문과 재학생을 격려하고 Midwest의 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Midwest 가족의 밤’은 단순한 친목의 자리를 넘어, Midwest University의 사명과 교육 철학을 재확인하고, 동문들이 모교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 확장에 함께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행사이다.

Midwest의 동문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모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며, 또한 2026년 Midwest 개교 40주년을 맞아 미국 본교에서 개최될 “Home Coming” 행사를 준비하며, Midwest 동문의 유산을 더욱 확장해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Midwest는 동양계 이민자가 세운 종합대학교로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USDE)와 대학 인가기관인 CHEA의 정식 인준을 받은 최초의 대학교이다. 이로써 학문적 우수성과 공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 라파의 집에 후원금·영양식 전달

대상웰라이프(주), 만성 신부전 환자 위해

제주 라파의 집(박진택 이사장)은 지난 4월 17일(목) 대상웰라이프(주)(대표이사 서훈교)의 뉴케어가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 및 영양식을 전달했다.

국내 유일의 만성신부전 환자 쉼터인 ‘제주 라파의 집’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신장질환자 전용 균형 영양식인 ‘뉴케어 케یدی 플러스’와 일반 환자용 ‘뉴케어 구수한맛 미니’ 등 다양한 영양식을 지원받았다.

신장질환 환자에게 식이 조절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장기간의 치료에 지친 환자와 간병에 지친 가족이 매일 고단백·저칼륨 식단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맞춤형 균형영양식 지원은 식단 관리의 부담을 덜고,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혈액투석 환자들에게는 ‘뉴케어 케یدی 플러스’를 지원해

힘겨운 치료 가운데 체력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후원금은 라파의 집의 난방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어,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라파의 집은 2007년 신장을 이식받기 전까지 평생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제주도 서귀

포시에 건립한 시설로, 현재까지 1만여 명의 환자가 이곳을 다녀가며 투병 중 심신의 안정을 얻었다.

제주 라파의 집 관계자는 “장기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일상에는 반복되는 치료와 까다로운 식단 조절의 어려움이 늘 공존한다.”라며 “뉴케어의 후원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2회 행복힐링콘서트 준비 박차

충남기총, 제18회 1차 실행위 열고 세부계획 등 논의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경태 목사, 충남기총)는 지난 4월 17일 서산제일감리교회(이규일 목사)에서 제18회 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 7일 부여군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될 제2회 행복힐링콘서트와 관련한 세부계획이 논의됐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복합문화행사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는 도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제공할 방침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출연진도 다양하다. 먼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TV조선 미스터트롯 준결승까지 진출한 가수 류지광 씨를 비롯해 MBC 개그

맨 출신으로 예능과 광고 모델, 라디오 DJ 등 다양한 장르에서 음악성을 확장한 MC겸 가수 영기가 출연할 예정이며, 탱고 음악과 재즈를 접목한 행복한 음악을 전하는 퓨전밴드 살롱드 오수경 씨와 색소폰의 달인으로 9인조 밴드 ‘오상호 노넷’ 리더로 감성적인 연주를 보여줄 제즈의 거장 색소포니스트 오상호 씨, 그리고 CCM 최고의 싱어송 라이터로 다수의 음반 발매와 OST에 참여한 감성 보컬리스트 모리아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그밖에도 부여 공영단체 ‘힐링’ 소속으로 부여문화재야행, 부여달밤야시장, 부여백제문화제, 부여예술인음악회 등에 다수 출연한 정은주 씨와 갈마산 색소폰동우회가 식전행사로 분위기를 띄울 방침이다.



■ 생명의 말씀 ■



유 봉 수 목사

- 교단 전임총회장
- 교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30여 년 전에 부흥회 관계로 홀로 미국 LA공방에 도착을 했는데 마중을 나온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시간이 갈수록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 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께 도와 달라 고 간절히 기도했습니 다.

그때 마침 제 앞을 지나가는 한국청년 이 제게 다가와서 물었습니 다. “한국분이시 죠?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 처지를 설명했더니 그가 이렇게 친절히 말 했습니 다. “제게 연락할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지닌 미국 동전으로 공중전화를 이용 해 만나서야 할 분에게 연락을 드리겠습니 다.” 아, 정말로 당시 저는 수중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미국 동전이 하나도 없었습니 다. 그 순간 땀방의 호에이 깜짝 놀란 저는 ‘이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닌가!’라 고 생각하며 감격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날 도우소서! 도우소서!” 간곡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 다.

우리는 최근 국가적으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 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히 여기서 이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소서!” 나타나는 현상 은 어지럽고 답답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 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 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구해 야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 해 봅시다.

첫째,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누가복음 22: 61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 자신의 믿음과 충정(忠情)에 대해 호언

장담하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근심어린 목소리 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 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 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 다. 출애굽기 3:11입니 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 고 4:13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이유는 자신이 언변(言辯)이 없는 사람 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했기 때문입니 다. (출 4:1)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 셧습니 다. “네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하고 도울 것이다!” 이 말 씀은 우리를 혼자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성 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 니 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미 같은 류(類)의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 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실 때 베드로는 이 처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마 16:16)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 다. 마태복음 16: 17입니 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육(肉)으로 알고, 깨닫 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 우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 다.

어떤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 다. 골초였던 그가 하루는 담배를 끊 겠다고 결심을 하고서는 주머니에 있는 담 배갑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 다. 그

러나 건디고 건디다가 밤에 밖으로 나가서 그 쓰레기통을 뒤져 낮에 버린 그 담배를 다시 들고 들어왔습니 다. 그렇습니 다. 마음 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인간입니 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 리를 주여 도우소서!”

둘째, 믿음이 약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백성들은 이미 애굽 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열 가지 재앙을 보았으면서도 흥해를 마주하자 모 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 다. “우리를 여기 서 수장(水葬)시키려 하느냐?” 이스라엘백 성들은 애굽에서의 기적을 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흥해가 갈라질 것을 믿 었어야만 했습니 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약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렸던 것입 니 다.

우리는 약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 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 다. 사탄 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말합니 다. 간혹 남북문제(南北問題)를 생각할 때 약한 마음을 먹는 국민 들이 있습니 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 고 말합니 다. “만약 남북 간에 전쟁이 발발 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재앙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일단은 저(低)자세로 그들과 타협을 하고 나중에 기회를 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 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6.25 당시의 박헌 영의 책략이었음을 알아야 합니 다. 겉으로 는 평화와 대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패배주의에 지나지 않는 발상 입니 다. 박헌영과 남쪽에 있던 그 좌익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나라를 혼란케 했 지만 결국은 다 이용당하다가 죽임당한 것 을 기억해야 합니 다.

모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결 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 다. 마치 이 시대의 성도들과 생각이 비슷했던 것입니 다. “증거 없이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셧습니

다. 요한복음 20:27입니 다. “도마에게 이르 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 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가만히 앉아서 의심만 하지 말 고, 믿음을 구하여 도전해보라는 말씀입니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保惠師, παράκλητος)로 ‘도우시 는 영’이십니다. 늘 공기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 다.

마가복음 9:23을 붙들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셋째, 지혜가 부족하니 우리를 도우소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자가 간음하 던 중에 현장에서 잡승처럼 끌려 나왔습니 다. 그 여자를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듯 말했습니 다. “예 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 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 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 8:4 -5) 그런 데 이들이 이처럼 물어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음흉한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 다. 요한복음 8:6입니 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 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 함이라” 만약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돌 로 쳐서 죽이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사랑 이 없다고 비난했을 테고, 반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 선생이라는 자가 율법을 여겼다고 비난하려는 사악한 심산(心算)이 었던 것입니 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보다 지 헤로우신 분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로 치라!”(요 8:7)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 인들은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납니 다. 요한 복음 8:9입니 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16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 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는 이리 같은 이들이 설치는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 를 주실 것입니 다. 비록 세상에 어수선하고, 악인들이 날뛰다 할지라도 분명 주님 지혜 로 인해 살 길을 찾아낼 것입니 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이 절대적 우위 (優位)에 있던 왜군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 은 무기가 아닌 지혜였습니 다. 그는 울돌목 의 해류를 이용해 왜구를 물리쳤던 것입니 다. 힘이 아니라 지혜가 우선입니 다. 우리 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작은 나라이지만, 지성적으로 새시대 21세기를 이끌어 나아 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 다.

인간은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서 갈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연약하지만, 그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 다. 불교에서는 모두 업보라고 말하 고, 유교는 돌아가신 조상을 잘 섬기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다름니 다. 우리는 죄와 허물 투성이의 인간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 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 라고 말씀하십니 다.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를 꾸어드린 것처럼 당당하게 구하라는 말 씀입니 다. 그것이 은혜의 기적이요 능력입 니 다.

마우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 5 - 8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 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 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 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다. 모름지기 지성인은 학자적 양심과 학문 을 토대로, 현실 정치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훈계를 해야 되는 데, 오히려 권력에 আব하는 모습이 안타 갑다.

더군다나 기독교의 부활절을 지내며, 예수님을 뵈뵈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상식 과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 김용욱 씨도 헛된 망발을 사과하고, 이재명 의원과 유시민씨 도 방송을 같이 하면서 바로잡지 못한 것을 기독교계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신성모 독’까지 하면서 인간을 신의 영역에 넣으려 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 랐다.



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배분하는 ‘행복한 트럭’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동정

명지대 · 세계교육문화원 MOU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박사) 교육미션 센터가 사단법인 세계 교육문화원(WECA) 및 한국국제형대안교육연합(KISA)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8,000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격차 해소와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다. WECA와의 협약은 지난 3월 6일 WECA 본부에서, KISA와의 협약은 3월 27일 사학법인미션 네트워크 본부에서 각각 진행됐다.

남침례회 총회장에 프레슬리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노스캐롤라이나 침례교 소식을 전 문으로 다루는 매체인 비블리컬 리코더를 인 용해 오는 6월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마이클 크라이너가 프레슬리 목사를 총회장에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슬리 목사는 “두 번째 임기에 추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보금자리 헌정



가수 선 씨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가 독립 유공자 후손을 위한 18·19호 집을 완성했다. 한국해비타트와 가수

화종부 총신대 신임 이사장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지난 4월 25 일(금) 사당캠퍼스에서 회의를 열고 화종부 목 사(남서울교회)를 제21 대 이사장으로 선출했 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화 목사는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연 임하게 된 화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세기총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전기현 장로 대표회장 재선임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세기총)는 지난 4월 22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K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기총은 대표회장에게 전기현 장로를 재선임하고 한반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염원하는 7개 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열방을 향한 소명의 메신저로서 섬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해외 한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회의 순전한 기능 회복과 복음 전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념과 정쟁으로 인해 생긴 분열을 넘어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하고 다문화 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세기총은 제13차 정기총회를 진행하며 전기현 장로의 제13대 대표회장 취임예배를 순서대로 진행했다.

개회예배는 지구촌사랑위임선교단(단장 오주운 목사)의 오프닝공연으로 시작돼, 공동회장 김윤숙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김기태 목사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지구촌사랑위임선교단과 인도네시아 지회(지회장 안태룡 선교사) 하라뽀인디산학대학교 찬양단의 특별한 찬양순서가 있었다.

법인이사장 김요셉 목사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세기총, 그리고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헌신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제2부 회무는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의 의장인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내빈소개와 회원 점령 후 의장 전기현 장로의 개회선언과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의 예수가 된다(?)

지금 한국 교회는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여, 한국교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유시민 유튜브에 현재 야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의원과 동양 철학자 김용욱 씨가 출연하여 방송을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김용욱 씨가 이런 말을 한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건 한국의 예수 사건이 될 것이다’ 귀를 의심하게 한다. 물론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아

니지만,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동양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김용욱 씨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

김용욱 씨의 기독교에 대한 망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야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을 대놓고 예수님과 견주어 신격화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수많은 문제점을 가진 정치인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비교하여,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결코 정치적 메시아나 권력을 거머쥐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고, 순교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시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왕)으로 삼으려고 하나,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여 떠나가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이에 실망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 이주배경 아동 130 가정에 한국어 교육, 진로 지도,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병행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공간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간을 향유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소외계층뿐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명삼 희망친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본부장은 “행복한나눔은 나눔 문화 확산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지스자산운용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나눔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나눔은 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기업으로 △리뷰 △생활잡화 △뷰티 △가전 등 기존받은 물품의 판매 수익금을 활용해 국내외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선순환 모델을 가지고 있다. 탈북민 자립 지원을 돕는 ‘탈북민자립매장’ 개설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한 상자’ 제작, 도서산간지역

국내 최초의 국제구조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1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4월 10일(목)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아대책의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과 이지스자산운용의 ‘상생과 미래 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뜻을 모으며 추진됐다. 양사는 기후변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한 성장이 필요한 국내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자니아 펌바 지역 맹그로브 숲 조성 △국내 결연아동 만찬지원 △이주배경아동 교육·심리 지원 △업사 이클링 제품 생산·지원 등이 있다. 특히 탄자니아의 황폐해진 땅에 35,000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탄자니아 맹그로브 숲 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훼손된 현지 숲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의 농업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취약계층 아동 300가정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는 ‘국내 결연아동 만찬지원’ 사업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 성명 발표

“국민의 이름으로 공정선거를 요구한다”

대한민국이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한 국민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성명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 주권의 회복과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와 자유한국교육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투표소 내 수개표 원칙 ▲외국인 선거 참여 제한 등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며, 선거 제도의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현 선거 구조를 방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헌법과 자유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며, 전 국민의 헌법적 저항권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성명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된 국내 정치세력의 전면조사 및 단절을 요구하며, 지금이야말로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결정적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2025년 4월 22일 공식 발표되며, 아래에 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정선거 촉구 국민성명서

대한민국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민의 주권에 대한 싸움이며, 진실과 거짓 사이의 역사적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교한 순국열사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유 법치 수호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이번에 목숨까지 바쳐 싸웠습니다. 이제 깨어난 국민은 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끝까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주권 싸움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과 거기에 줄을 대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친중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독재체제에서의 비효율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기생하던 국내 세력도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여러 차례의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자수 조작, 전자개표기에 의한 왜곡, 가짜투표지 투입, 외국인 선거참여 허용 등에서 노출된 불공정과 부정불법에 대하여 수많은 국민이 선관위와 법정에 검증과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였습니다. 도리어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부정선거라는 용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압박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행사에서 가장 중대사는 국민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무결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수단이 국민의 주권행사에 부적절하거나 거기에 상당한 결함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시정 혹은 폐지할 권한이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과 생명에 막대한 위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법이든 조직이든 신속히 정비 혹은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수 없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조작과 왜곡의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방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적 명령을 선포합니다.

● 1. 우리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정치권은 헌법과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도록 조치하라.
-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모든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어떠한 구조도 부정선거에 이용되지 못하게 즉시 개혁하라.
- 사전투표 제도는 폐기하라. 이는 부정의 시작이었고, 조작의 근원이었다. 선거는 본 투표 하루 혹은 이틀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이다.
- 개표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와 정부는 독일과 대만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철저한 감시 체제를 구축하며,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 현장에서 공개 수개표로 투명하게 진행하라.
-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 전적으로 협조하라.
- 선거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외국인의 투표 참여를 막고, 선거권 남용 방지 제도를 즉시 정비하라.
- 위의 국민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거부한 자이며, 이는 친중

공·친북한 전체(공산)주의를 따르는 매국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 땅을 떠나기를 요구한다.

8. 사전투표폐지와 완전히 수개표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할 것이 확정되기까지, 국민은 모두 선거 불참 운동과 헌법적 시민불복종 행위로 주권을 지킬 것이다.

● 2. 지금이 기회다-중국의 그림자가 걷히고 있다.

- 중국은 기후재난, 경제 마비, 군부 붕괴 조짐 등으로 체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 미국을 포함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단절을 실행 중이다.
- 중국의 힘에 빌붙었던 국내 세력은 더 이상 외부 지원도, 내부 명분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및 친중 정치세력과 연결된 모든 인물 · 자금 · 홍보체계를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국가보안법상 반역 혐의로 심판하라.
- 이제는 모든 국민이 총결기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공정선거를 되찾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 3. 결의 및 촉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결의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공정선거를 위해 위와 같은 것들을 실행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지금은 외교적 중립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존립을 위한 결단과 선택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위임된 권한을 기억하고 있으며, 국운의 길목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공정선거를 위해 위 내용들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추진하십시오. 국민이 적극 지지할 것이며,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국민적 명령이 법과 제도로 확정되어, 공정선거가 회복되기 전까지, 피를 흘리더라도 끝까지 단결하고 저항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선거 불참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것이며, 진실과 정의 위에 다음 세대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모든 국민은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이는 국민적 명령이며 요구이며,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선언입니다.

2025년 4월 22(화)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자유 대한민국 법치 수호와 공정선거 촉구를 위한 천만 대한민국 대연합 (Great Korea Union)

대한민국자유대연합,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안보단체연합, 대한민국회복연합,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교생명회복운동본부, 한미동맹강화재단, 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합동추모관,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분과위원회,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한미동맹USA재단,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연대전국연합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미주권회복연대, 등 2000여개 단체 연대

4.15 부정선거, R.O.C.T 장교단, 고대 트루스포럼, 공정사회 감시단, 광장문화연구소, 광주 5.18 진상규명, 국가공선감, 국가원로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연대전국연합회, 국사 바로알기,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국토본, 긍정의 힘 아카데미, 기독교생명회복운동본부, 김포시민연대, 나라사랑 모임, 나라사랑동지회, 나라지키기 켈로부대, 남북함께 국민연합, 느헤미야 구국회, 대한민국 벽동회, 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합동추모관, 대한민국자유대연합, 대한민국회복연합, 대한수호 장성단, 동성애 반대, 미래세대 살리는 바른 인권 세우기, 반문재인 서명운동, 방미협, 방송위원회, 백선협 장군 추모회, 법무부 출입행정, 사랑과 나눔 인천 지부, 새한국,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선관위 서버가 국민운동본부, 선한이웃봉사단, 손양원목사 유족회, 안보단체연합, 아베스 애국방송, 어르신 사랑 모임, 여성발전 연구회, 여의도 포럼, 예수마을 교회, 육군학사장교 동지회, 의로운 한국대한당, 이승만 바로세우기, 일사각오 구국연합, 일파 만파, 자유대한민국 국민모임,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자유연대 국민노조, 자유통일 문화원, 장교 구국 동지회, 전교지 공동대표, 전국 국사모, 전국 기감 원로회, 전국 안보단체, 전국 장로회, 전국 천주교, 전국 학부모,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진실정의위한국민연합, 청교도 훈련원 광주, 청장년 협의회, 태극단 선양회, 테헤란 시민연대, 통일 건국회, 한국생명회복연합,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분과위원회, 한국진흥원 정책, 한미 후원협회, 한미동맹USA재단, 한미동맹강화재단,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한미안보 연구회, 행동하는 자유시민, 헌법수호 국민연합, 헌법수호단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온누리에 가득하길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위 갈등과 분열의 역사 극복



이광몽 목사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대표이사 이광몽 목사, 이하 한부연)는 지난 4월 20 일(주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1 길 6 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부활의 주님,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 (사)한부연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찬양했다.

이날 예배는 한부연 이사 류현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정총연 김화인 목사의 대표기도, 예정총연 서기 김영복 목사의 성경봉독, 예정보수 합동 총회 오영호 목사의 예정합동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사)예정총연 고문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 목사는 막 16:14-20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권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함이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될 우리를 위해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의 대속을 희생적으로 감행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동거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아픔을 기꺼이 감



수하신 것"이라고 전하고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여 승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온 땅에 전하는 모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새로운 대통령과 정계지도자들을 위해',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 윤리 도덕과 저출산 회복을 위해', '종교연합주의 WCC 및 이단배망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 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사)한부연 성령충만과 연합 일치를 위해', 김병선 목사, 김남식 목사, 양유식 목사, 최명철 목사, 권혁

은 목사, 오선미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곧바로 (사)예정총연 고문 김원식 목사의 축사, (사)한부연 김기형 목사의 축사, 예정보수 합동 총회 임원일동의 헌금찬양, (사)예정총연 이사 김순종 목사의 헌금기도, (사)한부연 대표이사 이광몽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사)예정총연 고문 염창호 목사의 축도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은혜가운데 마쳤다.

한국교회의 부활절연합예배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 등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같이해 왔으며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대표이사 이광몽 목사)가 그 전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뿌리가 연합이라는 기반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인류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불허해야”

성전환자 양산 위험… 자유인권실천행동 등 기자회견

교계·시민단체들이 “성전환자 양산 위험성이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산하에 비영리법인인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이상 공동대표 주요섭 목사), 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 4월 21일(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7년 당기 복무 부서관으로 임관한故 변희수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군 당국은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 3일 승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故 변희수 전 하사 추모 사업’을 목적으로 내건 변희수재단 설립안을 최근 몇 차례 다뤄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이 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줄 것을 신청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은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변희수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해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故 변희수 하사의 비극적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를 모방하여 군인 중 트랜스젠더 지원자가 양산되고 자살자가 급증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눈높이에서故 변희수 씨의 죽음에 대해 부풀리거나 미화시켜선 안 된다고 본다. 많은 국민이 전정으로 그의 죽음을 후대에 가르치거나 기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의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의 개인적 불행과 비극적 죽음은 안타깝지만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그를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재단 설립을 허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많은 국민이 반감을 품고 있는 임태훈 씨와 군인권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변희수재단’ 설립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현재의 4·4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논평

현재의 탄핵인용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국회측의 주장에 손들어준 편파적 선고다

지난 2025년 4월 4일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한 윤대통령에 대하여 “국가 긴급권 남용”이란 명목으로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정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에 이어 두 번째 헌적 대통령 파면선고라는 불명예가 국가에 가해졌다. 4월 4일 현재는 계엄 선포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윤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문항배 권한대행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그 자체로 사법부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고 일반적으로 국회측 주장을 옹호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자 곧바로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한 대통령의 준비 행위를 인정치 않은 것은 현재의 편파성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4월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8%였다. 전국 377개 대학의 6,300여 명 교수 모임인 정교대(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지난 4월 21일 “원천적 무효, 종속재단 진행, 부정 탄핵, 외부 세력의 압력 의혹”을 선언 하면서 “탄핵 재심”을 청구하였다. 현재 탄핵판결에 대하여 다음같은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 현재의 탄핵인용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국민신임 배반”이라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발령,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 모두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야당의 정청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적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타협을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는 내란죄를 빼고 검찰 증거를 채택하고 피청구인즉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러한 현재의 판결은 다음같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판결이었다.

① 계엄 선포는 법적 요건의 미비라 하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야당단독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했고, 감액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는 국정을 운영 하는 대통령의 절박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은 위법이라 하나, 광종근의 오염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다. 현재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고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논란 증언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민주당의 회유에 의해 오염된 증언이라고 밝혀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③ 포고령 1호 발령은 국민기본권 침해라 하나, 실제로 기본권 침해는 없었다.

“포고령 1호, 정치적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현재는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계엄의 2 시간간의 해제로 인해 정치적 기본권 침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활동과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의 내용은 사실

로 구현되지 않았다.

④ 총장원 메모에 의거하여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은 사법부·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하나, 홍메로 일부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현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군군법집사령관과 총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통해 주요 법조인과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도 탄핵 인용 사유로 인정했다. 체포 목적의 위치 파악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현재심리와 정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일부 거짓말이 드러나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현재는 그의 증언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현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⑤ 야당 횡포를 인정하면서도 “계엄은 위법”이라 하여,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주었다. 현재는 “출탄핵” “예산액 삭감”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윤 대통령 임기 동안 횡포와 전횡을 일삼은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는 “야당의 횡포라고 판단했다더라도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탄핵을 인용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방적으로 현재가 의회 폭거를 허용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탄핵판결은 법리적으로도 편향된 판결로서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재판관들의 판결로 보기 어렵다.

2. 국회측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들어준 편파적 선고다.

현재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야당의 국정전횡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전가하였다. 현재는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함을 말하면서도 국회와 타협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거대 야당의 출탄핵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비상계엄은 통치자의 고도 정치행위인데 현재는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계엄이 위한 및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보나 대통령 탄핵반대 및 국민지지가 50%에 이를만큼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 7가지 사항이 지적된다.

①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생략했다. 현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비상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편파적으로 판결했다.

② 2020년개정형사소송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는 윤 대통령과 군인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현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도 증거로 인정하여, 판결했다. 현재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진술은 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2020년 개정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③ 현재는 “정치적 결단인 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하여 판결하였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을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헌법에 보장된 계엄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④ 현재는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측이 ‘경고성·평화적 계엄’이란 주장에 대해 현재는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등 탄핵 사유가 계엄 해제 전에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⑤ 현재는 “탄핵안 연속 발의… 회기 달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1주일 후에) 제출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일시부재’ 원칙에 어긋났다는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해 두 건의 탄핵안이 각기 다른 회기(1차 탄핵안 418회, 2차 탄핵안 419회)에 발의·제출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야당이 편법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점은 인정했다.

⑥ 선관위 전산망 서버 촬영 지시도 위

법으로 간주하였다.

선관위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계엄을 통해서 전산 서버를 촬영했는데, 이를 영장제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다. 현재는 편파적으로 국회측의 입장만 수용하고 대통령측의 입장을 위법, 직권 남용으로 판결했다.

⑦ “내란 혐의 형사재판서 다룰 내용을 현재가 판단한 건 이례적”이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피력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룰 계엄국회 투입이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등을 현재가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상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 결과를 예단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권한을 벗어났다”고 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법리적인 면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정치적 판결”이다.

3. 현재는 문 권한대행 등의 실추된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이번 판결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은 국회측의 입장만을 수용한 편파적이며,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8:0 인용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이념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 법리 해석에 있어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굴복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배신과 실망을 느끼게 한다. 연령도 제일 많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던 정형식 재판관이 판결문을 기초하여 5가지 정정 사항에 대하여 모두 윤 대통령의 중대 잘못으로 판결했다고 하는 대 정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양심적 법리 해석을 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보수 재판관들까지 출탄핵과 국가 행정부에 휘방한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다.

현재는 심리 절차의 불공정 그리고 내란죄가 삭제된 부당한 탄핵 인용, 특히 막판에서 뒤집은 판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판관 일부가 외부 정치세력의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와 사법부는 최고재판소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였다. 현재의 판결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법정에서 상응하는 평가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4. 여야 정치인들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고 이번 탄핵 사태가 가져다 준 국정공백과 사회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헌법에 적합한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남북대치 상황 그리고 핵개발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간첩법안 통과저지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종북정당 의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간첩법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사기밀과 민간기밀 탈취를 시도하는 중국인에게 확대적용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간첩행위로 그 임원이 구속된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것은 헌법적 공당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연대하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선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반미·반정부 시위 지침을 받고 헬리콥터 탑승 때 ‘되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까지 전달받았다. 야당이 종북 정세를 수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표명한다면 국정을 맡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국민의 힘은 너무 견제의 힘이 약하고 비전도 없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역부족이다. 여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제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하게된 것이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탄핵소추안에 동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여당에서 우리 시대를 이끄는 양심과 비전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2025년 4월 28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 개최

‘새한글성경’은 다음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이하 공회)는 4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영락교회(김윤성 위임목사) 본당에서 ‘새한글성경’의 완역과 출간을 기념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은 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와 한국어 사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는 공회 김경원 이사장의 사회로 이신균 부이사장의 기도, 정명철 이사의 성경봉독, 김윤성 목사(영락교회)의 계 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성 목사는 “성경이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말씀의 번역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하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성경의 새로운 번역”이라고 했다. 이어 공회 이두희 소장(성경번역연구소)

의 ‘새한글성경’ 번역 과정과 특징 보고, 양병희 이사의 ‘새한글성경’의 보급을 위한 기도, 김동권 이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학술 심포지엄은 공회 호재민 총무의 사회로 권의현 사장의 환영사, 박동현 교수(새한글성경 구약 책임번역자)의 인사말에 이어 이두희 소장의 사회로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6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김동혁 교수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 - ‘새한글성경’의 구약 번역 특징과 실제 -’를,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형대 교수는 “‘새한글성경’의 신약 번역 특징과 실제 - 저본, 문법, 표현을 중심으로 -’를 발표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유선명 교수는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함께 읽는 방안 - 옮기 번역에 나타난 특성들을 바탕으로 -’를, △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 이승문 교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아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 이수인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일기와 ‘새한글성경’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권순희 교수는 “‘새한글성경’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도 차이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장애인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빛을 찾아, 빛이 되어 - 이재서 박사의 삶’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CTS 기독교TV는 2025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학자, 대학 총장 그리고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 한평생 빛을 전하며 살아온 이재서 박사의 삶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빛을 찾아, 빛이 되어 - 이재서 박사의 삶’을 방송했다.

이번 특집 다큐멘터리는 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어린 시절! 설상가상으로 열다섯 나이에 시력을 모두 잃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재서 박사의 삶을 그렸다.

술한 어려움 끝에 충신대학교에 입학한 이재서 박사는 대학 3학년인 1979년 10월, 장애인 선교와 복지의 비전으로 현재 ‘세계밀알연합’으로 성장한 ‘한국밀알선교단’을 창단했다.

이후 이재서 박사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충신대학교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고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개선에 앞장섰다. 총장 퇴임 후에는 ‘세계밀알연합’의 총재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밀알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 사역하며 비전을 펼쳐가고 있다.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된 2025 장애인의 날 특집 다큐 ‘빛을 찾아, 빛이 되어 - 이재서 박사의 삶’은 육신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많은 장애인들을 응원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부활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고

부활의 빛이여 어두움을 비춰라. 악몽의 미소여 그대 한 순간에 꿈 땀한 한 방울 사랑이여라. 세상의 소음은 멈추지 않음이어 하늘의 소망은 내 영혼의 위험을 잠재우리라.

오 주여 모든 이들의 눈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은 생명의 숨으로 모든 생명체를 채우신다. 아 사망에 묶인 자여 오직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라. 주의 종들이 즐겁고 자유롭게 바보처럼 춤추어라. 부활의 향기여 흔들리는 봄 바람결에 흩어지는 고운 자태로다. 오라 그리운 고향 영혼의 지성소여 약속하는 생명으로 진동하도다.

갈보리 언덕 아픔을 호령하던 가상 칠언이여 피와 땀과 눈물로 구원의 집을 짓는다. 아 영원한 생명이어 나는 오늘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리라.

세상의 왕국이어 너는 오고가련만 오래가지 않으리. 미래여 그대가 과거가 된 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인생은 계속되고 사랑은 영원히 남으리라.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도 얻은 것이 있더라도 부활의 빛은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고 나도 영원히 하늘의 생명 받아 한 마리 나비되어 드높은 푸른 창공 자유의 두 날개로 비상하리라.

부활이여, 생명의 본체시여 아 위대한 부활의 빛이로다. 부활이여 영원하라 그대 영원한 생명의 빛이로다. 부활이여 영원하라 그대 영원한 생명의 빛이로다.

지난주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는 베트남 선교여

행 때 환경이 상황을 초월하여 주어지는대로 시도 때도 없이 노방전도 개인전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영접기도하며 복음을 외치고 심지어 작은 바구니 배안에서도 노를 짓는 원주민을 영접기도하게 하고 케이블카에서도 여행을 온 캄보디아인 가족을 영접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

가족세트 사무총장 이수 목사와 같이 개인별, 단체별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동참케 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바로 이어 이번 주에도 제주도 토속인 성회를 통하여 관광버스 가이드를 영접시켰고 대성회 때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전도에 도전을 받았다.

어제까지 호산나교회에 목회자전도훈련 전도자들만 모여 박영수 목사의 전도특강이 있었고 공원에 가서도 오고가는 모든 행인들에게 영접기도를 통하여 전도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어제 저녁에 동천안 CBMC 크리스천기독교인들이 설교를 통하여 전도의 메시지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토요일 오늘까지 교회 본질 예배회복 때 축사와 더불어 영접기도로 마무리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전국 대학가 장기기증 캠페인 진행 생명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2,288명 대학생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8개 대학교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총 2,288명의 대학생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먼저 부산 동명대학교에서 193명의 대학생들이 장기기증에 서약하며 막을 연 캠페인에는 경상국립대학교(121명), 경희대학교(122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97명), 대구가톨릭대학교(205명), 동남보건대학교(191명),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202명), 부산여자대학교(94명), 부산외국어대학교(356명), 상지대학교(19명), 서강대학교(141명), 수성대학교(61명), 신라대학교(136명), 아주대학교(101명), 안동과학대학교(69명), 영산대학교(70명), 전남대학교(64명), 호산대학교(46명)가 참여하며 생명나눔을 약속했다.

특히 지난 3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서강대학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 141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이끌었다.

이는 ‘손짓사람’가 주도했으며 회장 정세희 씨(미



디아&엔터테인먼트학과 3학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릴 수 있어 뜻깊었으며 공동체가 한층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서강대학교 이나시오인재센터의 서영아 대우교수는 “장기기증 캠페인은 강의 중심의 일방향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직접 고민하고 전달하는 양방향적인 교육의 장”이라고 평가했으며, 박혜윤 대우교수 역시 “많은 학생이 치열한 일상 중에도 삶의 가치를 고민하며 생명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

‘2025년 제3회 4월28일(월)부터 5월27일(화)까지 1차 공모

재단법인 인류애실천분중문화재단(약칭‘분중문화재단’)은 “2025년 제3회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계획을 4월 28일(월) 오전에 발표했다.

올해로 3회째 되는 인류애실천 분중문화상은 4월 28일(월)부터 5월 27일(화)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2025.09.13.(토)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에서 선발된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한다.

재단 측이 발표한 올해 시상은 예년과 같이 문화예술 일반과 문화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데, ①문화예술 일반 부문은 △성악, 기악, 무지컬, 대중가수, 대중음악(클래식, 재즈, 록, 포크 등 포함 각양 형태), △미술(회화, 조소, 공예, 서예 등), △연극/영화(배우 및 감독, 스텝), △무용(교전, 현대, 비보이, 모던재즈 등 댄스 및 안무 각양 형태), △문학(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번역 포함) 부문으로 공모가 진행되며, ②

문화취약계층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선교사(목회자)자녀, 북한이탈주민 중 문화예술분야의 재능 있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선발 시상하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단체시상을 폐지하고, 개인후보자만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무엇보다도 인류애실천 기독교문화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는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남)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대장암,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 논설교론,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부모님 존경의 마음은 효도의 기초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많은 상원의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연단 위에 서서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링컨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으로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 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집에 찾아오곤 했소. 이 신발도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이에 여기저기서 킁킁거리는 웃음소리가 새나왔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 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 잡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 아버지가 만

든 신발을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발이 불편하다면 제게 말 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 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물 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맺었으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가득해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부모님 사랑, 존경의 마음은 효도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었기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이기에 존경하는 것입니 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의 훌륭함의 여부를 따져서 말씀한 곳은 없습니다.

아버이주일예 유감 된 일 중에는 부모님 존중을 내가 결정하는 것과 같은 태 도를 지닌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해 준 것이 무엇인데...' 그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 니다. 그 후에 희망의 일들은 자녀 된 이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새 사람 되는 길

그분께 가고 싶어 심령에 자주 옷을 입힌다.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것 저것 덧붙이며 코디를 해본다.

벗겨 내거라~~

마음에 입힌 옷을 벗기거라~~

쫄쫄 싸매놓은 마음 보일 때까지 벗기라는 주의 음성.

보혈 흘려 구원의 길 여시고 날 기다려 주신 사랑.

뜨거워진 마음... 참회의 눈물...

죄인 용서 하소서...

말씀이 걸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놀라운 복음이 능력되는 순간이다.



옷을 벗겨 낼 때마다 더욱 더 심해지는 뉘새.

저기 저만큼 바닥이 보이는가... 어디 만큼인가...

하나 가득 온통 부패한 오물덩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마는...(렘 17:9)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분 오직 주님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그날을 기억하며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지는 노래.

사설

여호와와 의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다수결과 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도구이지만, 민주주의를 상실한 법치와 다수결은 악법과 대중에 의한 독재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직무 정지된 박 장관은 119일 만에 복귀했다.

그렇다면 국회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인 즉 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②국회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③국회 본회의 도중에 퇴장한 점 ④민주당이 아버지라고 여기는 이재명 대표를 쫓아낸 점 등이었다.

현재는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국회의측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각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해 고위 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사건은 총13건이다. 이중 11건이 결과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를 보면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들이 얼마나 날림이고 엉터리인가를 넉넉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탄핵 소추를 멈추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쏟아 내고 있다.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거나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한다면 이런 망나니짓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막무가내 식으로 별 무려한 짓을 다해도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식으로 지지를 하니까 이런 망나니짓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망나니짓을 하는 자들과 막무가내 식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가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쫓아낸 것이 탄핵 사유라고? 이재명 대표를 쫓아낸 것이 국회 무시이고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박 장관은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냐며 반박했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조폭이 따로 없다. '눈 안 깔어?' 왜 쳐다보느냐는 것이다. 매사가 황당무계하다.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당 대표를 퇴장하면서 쳐다 본 것이 탄핵 사유라고? 이런 황당한 탄핵 소추가 하나 둘이 아니다. 탄핵소추의 기본 요건인 '직무 관련성'부터 인정할 수 없는 소추안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얘기다. 심지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때는 엉뚱하게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한다고까지 했다. 얼마나 날림으로 탄핵을 하고 있냐를 알 수 있다. 이

렇게 하는 짓이 만경창과 엉망진창인데 이런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뇌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 요즘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듣는 소리들은 만일... 정말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말을 쉽게 바꾸기도 하지만 잡아떼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범죄 피의자인데 대통령을 한다고? 원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나? 우기고 잡아떼고 뒤집고 조작하고 막가파 식으로 행동해도, 아랫목에 변을 싸도 괜찮은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나?

그동안의 이재명 후보의 과거 행보는 기업보다 노조 우선, 한미협력보다는 친중국 친북한 사고를 가진 냉혹한 모습. 함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하고 사진을 찍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10여 일이나 같이 했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준 신뢰를 얻기 어려운 언행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경제가 망가지든, 국정이 마비되든 상관없다는 무모함... 소름끼치는 일이다. 우주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무모함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 역사의 판결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면 안 된다. 개·돼지가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전체가 개·돼지가 아니다.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 첫째는 민주공화국을 지켜 나갈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 편향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통합적인 지도자여야 한다. 네 번째는 외교, 국방, 안보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경제를 잘 아는 지도자여야 한다. 여섯째는 국가관과 역사관이 분명해야 한다. 일곱째는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여덟째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갈 사람이야 한다. 아홉째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열 번째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5년 5월 19일(월)

2. 등 록 : 5월 19일(월) 오전 11시부터

3. 개회예배 : 5월 19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19일(월) 오후 2시 30분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5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영 준